

최태원 회장, 울산 제조현장 방문… ‘AI 풀스택’ 직접 챙긴다

〈SK그룹〉

SK이노 등 주요 계열사 CEO 동행
‘AI 풀스택 프로바이더’ 실행력 확인
“SK그룹 AX 의지 점검하는 자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 제조현장을 찾아 인공지능 전환(AI)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부터 정유·화학 생산현장의 AX까지 직접 살피며 그룹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10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를 잇달아 방문했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정재현 SK텔레콤 사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김원기 SK엔트비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동행했다.

이번 현장경영은 최 회장이 지난 6월 ‘뉴 이천포럼’에서 AX 중심의 경영 대전환을 강조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서비스, 제조현장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해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의미가 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회장이 먼저 찾은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SK그룹이 전국에 추진하는 15GW(기가와트) 규모 AI 인프라 사업의 첫 사업지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SK하이닉스, SK AX 등 주요 계열사의 역량이 결집되며,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SK는 향후 영남권에 총 2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울산CLX는 AI를 실제 제조공정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AX 현장이다. 정유·화학 공정의 최적화와 안전관리,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AI가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엔지니어의 경험과 결합하는 ‘듀얼 브레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50만평 규모의 생산설비를 AI가 상시 감지·분석하고 최종 판단은 현장 인력이 내리는 방식이다.

SK가 AX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AI 산업의 경쟁축이 기술 자체에서 인프라와 실제 산업 적용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경쟁력을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제조 AX로 연결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의 이번 행보는 이 같은 ‘AI 풀스택 프로바이더’ 전략의 실행력을 직접 확인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 투자 부담과 에너지 수요 증가,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면서 AX를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그룹 전반의 경영체질 변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의 AX 가속화 의지가 AI 풀스택 전 구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AI 인프라, 제조현장의 AX까지 모든 영역을 빈틈없이 살피며 ‘AI 풀스택 프로바이더’로 서 입지를 주도해 나가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GNI 4만달러 장밋빛’서 계속

기업 실적·설비투자 ‘쑥’ 가계 소득·민간소비 ‘뚝’

올해 IT(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조선·기계 등 여타 제조업의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뛰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또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 같은 기업 실적 개선이 정부 및 가계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의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 것. 정부 부문도 내년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성장률 급등이 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 세수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이라 관측이다.

다만 수요 측 압력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늘어난 소득이 저축이나 자산 취득보다 민간소비로 이어질수록 물가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여건 개선이 주택 매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명목성장률 급등이 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수출 최대 실적 등이 가계로 흐르지 않는 점이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부분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들이는 데 수십조 원을 쓴다. 하지만 대규모의 직접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올해 2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2.1% 늘었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37만 원으로 0.8% 줄었다. 실질임금은 올해 4월 -1.0%, 5월 -1.4%, 6월 -0.1% 등 석 달 연속으로 후퇴했다.

근로자·가계 소득이 도리어 거꾸로 가는 흐름 속에 소비 역시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0.8% 줄어 들었다. 특히 승용차와 가전 등 고가 내구재 구매(-4.1%)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외식 및 숙박업 생산(-1.0%) 지표도 뒷걸음질쳤다.

물가는 차솟고 주가비 부담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중동사태의 불확실성 탓에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거세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6%에서 3.4%로 크게 상승했다.

또 7월 20대 실업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p) 올랐고 고용률은 60% 미만을 보였다. 반도체 호황에도,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수도권 내 주가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7월 수도권 월세 가격 상승률은 0.64%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72%(전월 0.67%)로 더 높다. 수년간의 인허가·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30% 넘게 급감한 여파가 주가비 상승을 불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조선, 특수선·잠수함 등 글로벌 수주 팔 걷어

한화오션 태국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 HD현대중공업 사우디 등 중남미 시장 진입

한화오션이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다음 수주처로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국가가 수상함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후속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30년 특수선사업 매출을 4조원, HD현대중공업은 7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의 목표를 단순 합산하면 11조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수주 확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최근 태국 해군의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1척과 통합군수지원체

계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안 금액은 167억3000만바트(약 6833억원)이다.

태국은 현재 4척인 호위함 전력을 2037년까지 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 이후 후속함 3척이 추가 발주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4조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 수주전은 필리핀 잠수함 사업으로 이어진다. 필리핀은 약 2조원 규모의 잠수함 2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KSS-III 계열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동남아시아 연안 작전에 맞춘 수출형 잠수함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이 잠수함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함정 성능뿐 아니라 기지 건설과 승조원 양성, 장기 정비지원 능력도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

현대화 사업도 주요 수주 후보로 꼽힌다. 사우디는 6000톤급 호위함 5척과 잠수함 4~6척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해군 수요에 맞춘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리아드에서 열린 ‘WDS 2026’에서 KSS-III 배치 II 잠수함과 맞춤형 잠수함 기지 모델을 선보였다. 국내 협력업체 11곳과 중동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사우디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가 국방비의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어 현지 건조와 기술이전, 자국 업체의 사업 참여 조건이 수주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에서는 현지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15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향후 건조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칠레에 2000톤급 잠수함 ‘오션 2000’과 4500톤급 호위함 ‘오션 4500’을 제안했다. 칠레 해군의 운용환경과 노후 함정 교체 수요에 맞춰 잠수함과 수상함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남미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오랜 기간 수출 실적과 현지 네트워크를 쌓아온 주력 시장으로 한국산 무기체계의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이 형성돼 있다”며 “기존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중동과 유럽에서 신규 계약을 확보한다면 양사가 제시한 특수선 매출 계획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AI, 이달 말 KF-21 공군 인도… 국산 전투기 수출 ‘속도’

2032년까지 120대 전력화 추진 글로벌 무대에서 KF-21 가능성 열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이 이달 말 양산 1호기 인도를 시작으로 공군 전력에 합류한다. 오는 2032년까지 120대 전력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KAI는 현재 폴란드 방산전시회에서 차세대 전투체계로의 확장 구상도 제시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양산 1호기는 이달 말 공군에 인도된다. 지난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9개월 만이다.

KF-21 사업은 2001년 국산 첨단 전투



KF-21.

/KAI

기 개발 선언 이후 단계별 절차를 밟아왔다.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올해 3월 양산 1호기 공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쳤다. 시제기 6대를 투입해 42개월간 약 1600회의 비행시험도 수행했다.

초기 인도 물량은 공대공 전투에 중점

을 둔 ‘블록(Block) I’ 사양이다. 동체 하부에는 MBDA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이 탑재된다. 날개에는 독일 딕(Diehl)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가 장착된다. 20mm M61A2 기관포도 적용된다.

미티어는 공군 최초 운용 시점에 맞춰 인도될 예정이어서 이달 도입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4년 10월 MBDA와 미티어 100발 도입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 실사격 시험을 통해 무장 연동과 유도·사격 성능 검증도 마쳤다.

KAI는 방위사업청과 1·2차 계약을 맺고 초도 양산 40대를 확보했다. 계약 규모

는 약 4조3500억원이다. 오는 2028년까지 블록 I 40대를 순차 배치한다. 이후 공대공 임무를 추가한 블록 II 80대를 생산한다. 오는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KAI는 첫 공군 인도를 앞두고 KF-21의 장기 발전 가능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참가해 KF-21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시회에서는 KF-21과 무인전투기(UCAV), 다목적무인기(AAP), 저궤도 통신위성을 연계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3 ACS)’를 공개했다. 4.5세대급 KF-21에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향후 6세대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chahchah@

